

### 8월의 기도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히브리서 5:8-9)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2014년 해외성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4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 DCEM 성회안내

2014년 9월 25, 2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조용기 목사 초청  
"Lord, Revive Russia" 성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호, 김정자, 나인규, 박우택, 안휘순, 오현주, 원소선, 이형춘, 정낙숙, 최인철, 한태성, 함석숙, Thomas&Sally Jarvis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 나의 시민권

믿음 좋은 사람이 남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인이 그에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편안히 잘 살고 모든 것이 좋은데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밤낮 시련을 겪고 고통 당하며 괴로움을 겪느냐? 차라리 믿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불신자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들은 종은 "만약 주인님이 사냥을 나갔는데 산에서 노루 두 마리를 발견하고 한 마리를 쏘았는데 죽사했습니다. 둘째 노루를 쏘았는데 총알이 빗나가서 못 잡았습니다. 둘째 노루가 나무 사이를 막 도망을 치는데 어느 노루를 따라가겠습니까?"라고 되물었고 주인은 "그것을 말이라고 하나? 죽은 것이 이미 내 것이 되었는데 왜 따라가? 살아서 도망치는 그 놈을 따라가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종은 "맞습니다. 마귀가 주인님에게 손을 안대는 것은 주인님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기 때문에 잡으려고 따라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담 이후 육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마귀의 종살이를 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으므로 마귀는 세상 사람에게 육신의 부귀, 영화, 공명을 줍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부귀, 영화, 공명에 취해서 살다가 영원히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적인 시민이 아닙니다. 세상 시민은 그 주인인 마귀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세상에 세상 시민들과 천국 시민이 어울려 살지만 세상 시민은 마귀의 지시를 따르고 천국 시민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시민은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 이웃을 내 몸같이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ugust News Letter

## 제26회 아세아성도방한대성회 성령간구에 하늘과 땅 진동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성령 충만 할 때 천국문화 전파할 수 있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예수아 워워엔 니 자이라이"(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예수여 오시옵소서)

제26회 아세아성도방한대성회에 참석한 중화권 성도들의 찬양에 땅이 울리고 하늘이 울렸다. 두 팔 벌려 간구하는 이들의 찬양과 기도는 간절하고 뜨거웠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다는 다짐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대만을 비롯해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9개국에서 온 2800여 명 중화권 목회자와 성도들. 이들은 '천국 문화와 부흥'을 주제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오산

리최자실기념공식기도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

매년 잊지 않고 성회에 참석한다는 성도부터 금식기도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싶어 처음 왔다는 성도까지 참석자들은 이 땅에 천국 문화 확산에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모았다. 성회 참석자들은 금식 기도하며 무엇보다 성령을 간구했다. 성령과 동행하며 절대대 믿음 배우고 '교회성장과 부흥에 대한 꿈'을 꾸겠다고 각오했다

기도원 일정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 세미나를 인도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천국문화를 전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

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조용기 목사는 사람이 영혼을 소유한 존재라고 말하며 "이중 영적 자아를 가진 사람은 인본 중심, 정욕을 탐하는 이들과 달리 4차원의 영성을 소유한 영의 사람으로 성령과 동행한다"고 설명했다. 성령이 함께 하면 생각 꿈 믿음 말이 절대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한 조용기 목사는 성령으로 인해 천국문화가 임하면 우리 삶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통역은 장한업 목사(타이페이순복음교회)가 맡았다.

조용기 목사는 설교 후 아세아성도방한대성회에 참석한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수료증,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한 성회를 주관한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동북아선교회(회장 최병구 장로) 임원, 대만 등 중화권 목사들과 오찬을 나누며 세계복음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아세아성도방한대성회는 한국 및 홍콩 대만 에스라 봉사자 70여 명이 헌신적으로 참여해 섬김의 귀감이 됐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을 통하면 믿음이 강해지고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기도의 권세도 강해져 능력 있게 세상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Thomas Adams)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이 오거든 그것을 플러스로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됩니다.

## 2.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려면 무엇보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마귀가 두려움을 냇물같이 흐르게 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두려움과 대면하여 싸워서는 안됩니다. 우리 스스로 싸우려 하면 두려움이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시고 우리를 통해 두려움을 물리쳐 쫓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생명처럼 귀한 아들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둘러 진을 쳐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품에 품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찬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 3.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해를 가져오는데 두려

움이 사라지니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마귀가 그 두려움을 통해 해를 받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극적인 장면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한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속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도 십자가 보혈로 물리치고 대항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으로 나아지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빛장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빛장으로 두려움이 감히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는 선포와 시인을 통해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 4.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교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에게 묶여있는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능력을 통해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 속하였을 때 억압된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질병과 고통의 억압, 불안과 공포의 억압, 좌절과 절망의 억압, 미움과 원한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멘 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햇빛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으로 햇빛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빛을 먹고 살고 영적으로도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빛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늘에 있는 햇빛을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계신 영혼의 빛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 하나님 주신 ‘꿈’이 ‘절대 긍정 믿음’ 갖게 했다



첸 사오동 목사 (호주 은혜의말씀교회)

호주 브리즈번에서 사역하는 첸 사오동 목사의 주된 사역은 캠퍼스 전도. 중국과 대만에서 유학 온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는데 힘쓰고 있다. 유학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학생 등이 대다수라 현재 교회 성도수는 500명. 그동안 4000여 명 젊은이들이 침례를 받기도 했다. 호주 60여 개 대학에서 정식 인가를 받아 캠퍼스 복음화에 헌신하는 첸 사오동 목사는 “90% 이상이 중화권 유학생이지만 일본,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내가 먼저 아세아성도방한대성회에 참석

해 은혜를 받고 12년 전 성회에 처음 참석한 첸 사오동 목사는 올해 120여 명 성도들과 함께 오산리최자실기기념금식기도원을 찾았다.

“9년 전부터는 매년 아세아성도방한대성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브리즈번에서부터 한 국까지 10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성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팀이 있다. 그리고 찬양팀에서 하는 컨퍼런스에는 매년 세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하고 있다. 하지만 첸 목사는 교회 성도인 유학생들에게 아세아성도방한대성회를 권한다. 이유는 젊은 성도들에게 금식 기도의 중요성과 성령이 주시는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제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알게 된 것은 신학생 때인 36년 전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이전한 지 몇 해 흐른 뒤죠. 당시 장마오송 목사님과 대만 중화기도원장님과 동행했는데 그때 성령을 알게 됐어요. 루터교 출신인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시다”

첸 목사는 그때 들은 조용기 목사의 설교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꿈을 가지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큰 꿈을 가지라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제 가슴에 새겨졌고, 사역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에게 절대긍정의 믿음을 가르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25년 전 대만에서 뉴질랜드로 건너간 첸 목사는 조용기 목사를 통해 배운 ‘꿈’ 하나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그 결과 5년 만에 교회 건축의 부채를 모두 갚았다. 성장하는 뉴질랜드 교회를 두고 호주로 건너온 첸 목사가 브리즈번 은혜의 말씀교회에 부임할 당시 성도는 26명이 전부였다. 브리즈번에서도 첸 목사는 교회 부흥에 대한 ‘꿈’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다. 믿음으로 축구장 2개 넓이 크기인 3.1에이커 부지를 매입했고, 1200석을 규모의 성전을 완공했다. 교회 개척은 순전히 조용기 목사로부터 배운 ‘꿈과 비전’의 산물이었다. 성전은 호주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의 영적 안식처가 돼 줬다. 첸 목사의 사역은 브리즈번에 국한 되지 않았다. 차로 2시간 떨어진 골드코스트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 유학생들에게 길과 진리, 생명되신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성령이 주신 ‘꿈’, 4차원의 영성을 통해 기적을 체험했기에 첸 목사는 젊은 유학생들에게도 주님으로 인한 ‘꿈’의 기적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세아성도방한대성회였다.

일흔을 바라보는 첸 목사는 이번 아세아성도방한대성회에서 새로운 꿈의 실현을 위해 기도 중이다. 바로 브리즈번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지난해 땅을 매입하고 교회 건축 중이라는 첸 목사는 “직접 현장에 나가 교회 짓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오늘도 첸 목사는 조용기 목사에게 배웠던 4차원의 영성을 갖고 복음의 현장에서 쉼 없이 뛰고 있다. 할렐루야.